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막아내자

목포환경운동연합

(우) 58753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3-1
Tel 061)243-3169 Fax 061)244-7345
E-mail mokpo@kfem.or.kr
홈페이지 <http://mp.ekfem.or.kr>

 '목포환경운동연합' 검색하세요 🔍

 '목포환경운동연합' '좋아요' 눌러주세요

 @mokpokfem 팔로우 해주세요

발행일 2023.08.16. 제136호



6월23일(금) 목포 환경운동 40년, 목포환경운동연합 26년 기념행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 회원 참여 퍼포먼스

/ 목 / 차 /

- 02 지역 현안 1
- 04 지역 현안 2
- 05 특별 기고 1
- 06 특별 기고 2

- 08 활동 보고
- 10 회비 납부
- 11 회계 보고
- 12 환경동화책 소개

- 13 환경 시
- 14 동호회 소개
- 15 신입회원 안내 /
환경단상

- 16 후원신청서 / 광고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서부권 공동행동

출범선언 기자회견문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이유이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다.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만적인 보고서를 명분 삼아 방사성 오염수를 이르면 8월부터 1,066개 탱크에 담긴 133만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버릴 태세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에 미칠 악영향은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대 수준인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에서도 수산업의 비중의 가장 큰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여 핵 테러의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열린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찬성 허용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가짜뉴스’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공범이며, 흉위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방류를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전남서부권 주민 앞장서서 해양투기 막아내자!

생명의 바다와 갯벌을 터전으로 삼아 수천년을 살아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의로운 항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우리 전남서부권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해양투기 반대로 돌아설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집회, 서명,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양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전남도지사와 각 지자체장은 주민의 염원인 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라!

방사성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되면 전남의 수산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주민들은 골병을 얻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히한데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할 전라남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듣는다면 전남도지사와 시군 지자체장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서 해양투기를 막는 선봉장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

하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찬성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하나. 오염수 방류되면 전남 수산업 다 죽는다. 전남도지사와 지자체장은 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라!

하나. 전남 서부권 주민 하나되어 바다오염, 생존위협, 미래파괴, 해양투기 결사 저지하자!

2023년 7월 26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서부권 공동행동
목포/무안/신안/영암

[알림]

■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전국행동>

- 일시 : 8/12(토) 오후 6시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앞 집결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촛불대회를 진행합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매주 수요일 출근길 피켓시위>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오전 8시50분
- 장소 : 목포시청 / 신안군청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 피켓시위 참여자 모집중입니다.



국토부 환경청이 되어 버린 환경부

글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 때 실세였던 이재오씨가 대표로 있었던 ‘4대강 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감사 청구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벌써 4대강 사업 관련 다섯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오후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발표에서 ▲환경부의 5개 보의 경제성 분석 오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부의 5개 보의 경제성 기초자료’의 오류를 감사원이 제안한 근거로 직접 분석한 결과를 내놔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고,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감사원이 제시한 방법론을 반영했지만, 역시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위법하였고, 환경부가 시민단체에 위원 후보자 명단을 먼저 전달하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사람들을 표시해 제외하도록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관계자가 받아본 명단은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으며, 이 명단마저도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4대강의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규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1급 고위직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고, 그 자리를 국토부 출신들을 중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환경청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장에서 오랜시간 동안 직접 목도했습니다. 4대강의 보들은 홍수, 가뭄,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가깝게는 2020년 홍수에서 4대강의 보는 통수 능력을 방해했고, 2022년과 2023년 초여름까지 극심한 가뭄 때는 음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질이었습니다. 4대강 보의 물은 ‘녹차라떼’라고 불리며 심각한 녹조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4대강의 재자연화입니다. 파헤쳐지고, 썩어가는 죽음의 강을 철새들이 돌아오는 강으로 바람과 모래가 머무는 곳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멈추고, 현재의 계획대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해야 합니다.



▶ 4대강 사업 회귀 시도, 환경파괴 토건사업 획책하는 환경부 규탄 전국 동시 기자회견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속 위기의 곤충들

글/사진 | 이재석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동물자원연구부 전임연구원

곤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물이다. 더운 날씨 속에 주변을 날아다니며 모기와 파리를 잡아먹는 잠자리, 도심 속에서 시끄럽게 짹을 찾아 울고 있는 매미, 열심히 먹이를 모으며 일을 하는 개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곤충들에게 최근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곤충들은 개, 고양이와 다르게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생물이다. 그래서 곤충들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다음 세대를 기약하며, 자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거나, 나무껍질 아래, 땅속과 같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서식지를 찾아 숨어두고, 이듬해 따뜻한 봄이 오면, 애벌레나 어른벌레로 밖에 나와 먹이를 먹고, 짹을 찾는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는 이런 곤충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름 기온이 비교적 선선한 강원도, 경기도 북부에서 볼 수 있었던 곤충들은 뜨거워지는 기후 속에서 점점 북쪽으로 서식지를 바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뜻한 제주도와 남쪽지역에서만 살던 남방노랑나비와 같은 곤충들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지방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곤충은 식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분포변화가 느린 식물에 비해 온도에 따라 곤충들은 빠르게 서식지를 이동하게 되면서, 먹이식물을 찾지 못하는 곤충들이 죽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천적이 사라진 환경 속에서 대발생을 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봄이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지거나 또는 갑자기 추워지는 이상기후는 곤충들을 헛갈리게 하고, 자연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곤충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꿀벌이다. 꿀벌은 꿀을 모으고, 사과나무, 배나무 등 식물의 화분을 하고 있어,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물이다.

꿀벌은 겨울 동안 월동을 하다가 3월의 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열심히 꿀을 모으며, 애벌레들을 양육한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상기후로 꽃들이 평년보다 빨리 피고 지게 되면서 꿀벌들이 꿀을 모으지 못하고, 죽어 가고 있다. 또, 덥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꿀벌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곤충을 포함한 생물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대벌레



▶ 양봉꿀벌

친환경농업

글 | 강제석 목포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자식사랑〉

세계 나라의 들판을 돌아보면 동양, 서양의 관념 차이에 따른 작물 관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동양의 대표적인 농촌 일본의 들판을 보면, 구석구석 주인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다. 더욱 감명스러운 일은 농장주가 이른 아침 잎에 맺힌 이슬방울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작물이 물을 원하는지 비료를 원하는지 잘 이해한다. 작물을 자식처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며 가꾸어오는 동안 이제는 농작물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한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공판장에서도 최고가격을 기록함으로써 수입으로 인한 걱정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주말농업과 생활농업으로 바뀌고 있으며, 농민이 아닌 전문 농업 경영인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농장은 규모부터 몇십만 평 이상의 기업농이 수도룩하다. 개원부터 무독묘의 규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수, 배수, 토양유기물 관리를 교과서대로 시행한다. 3년마다 엽분석과 토양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과학 영농의 표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과잉생산과 수입 자유화 경제 난국까지 겹친 우리는 숨 돌릴 틈이 없다. 바로 일본의 자식 사랑, 미국의 과학 영농습관이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작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정성껏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기록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토양을 분석하여 과학적인 시비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한 작물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자식과 건강한 농작물은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다.

〈친환경농업의 시작〉

우리나라도 45년 전 고(故) 성천 류달영 박사를 비롯한 농학도들이 ‘건강과 자연농업’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환경농업이 태동하였다. 이때만 해도 친환경적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이 전

무하여, 환경농업이 자리 잡기에는 요원한 일이었다. 전쟁 이후 국민의 식량안보가 중요시되었기에 정책 방향은 다수확 정책이 국가의 농업정책으로 매년 다수확 왕을 선발하여 표창을 주는 시절이었다. 반면에 환경농업은 수확이 줄고, 농산물이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도 기피했고, 정부 시책에 반하는 농업으로 금기시되어 왔다. 2009년 경 필자도 농민 단체 강의 요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강의하는데, 센터 소장과 교육담당관이 와서 엠프와 마이크 전원, 교육관 전등을 끄고 교육 진행을 방해했던 시절이 있었다.

1997년 김대중 정권과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과 시설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재정하면서부터 본 궤도에 올라 지금에 이르렀다. 초기의 유기농업은 폭발적이었다. 농약과 농자제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농사 비용이 절감되고 점진적인 기술 보급으로 수확량의 감소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 정부 판로 정책도 협조적이었다. “벌레 먹고, 못생겼어도 달고, 맛있고, 안전해요”라는 슬로건을 내놓으며, 40여 년 만에 서양의 유기농업 역사 100~150여 년 기술을 능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책임감 있는 농업인이 부재한다. 필자도 2021년까지 농업마이스터고, 마이스터 대학 친환경 농업반 학점 운영을 해왔다. 배우려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학점을 획득하기 위한 강의를 듣지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실질적 수혜자가 없다는 점이다.

〈오늘의 농업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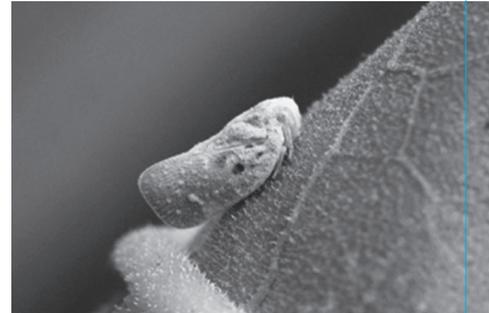
현재의 농업 농촌은 위기의 상황이다. 위기라고 판단하는 지도자는 많은데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정책과 정책입안자는 없다. 첫째는 농업인 구 감소이다. 노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에 비해 새로 유입하는 청년농업인은 극소수이다.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의 대부분은 친환경 농업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더라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성상 복잡하고 거친 농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스마트 농업, 기계화, 전산(자)농업, 손 안 대고 코를 풀어야 한다. 이렇듯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실은 흠과 멀어지는 상황이다. 농업의 근간이 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흠을 떠나서는 농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이상기온이다. 필자는 친환경 배 농사를 해왔는데 3년 전 폐원했다. 나이 들어 몸이 노동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40여 년 전 과원에 소독을 하는 횟수는 10회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50여 회로 방제 비용의 과다와 이상기온에 의한 아열대 병해충의 기습과 우점으로 친환경 방제로는 지탱할 수 없었던 원인이 폐원에 이르게 된 사실이다.

미국 선녀벌레의 출현은 10여 년 전 경기도 일원이었다. 외래 회충의 유입은 대개는 항공기, 선박을 통해서 수출입 되는 화물에서 전파된다.

공항이나 항만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 5년이 안 되어 광양 지역 등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 온습도의 상승으로 연간 8회기, 10회기 동안 번식하여 전 국토를 우점하고 있다. 잎과 과일에 붙어 즙액을 흡즙하므로 잎과 과일이 병이 들거나 낙과되어 버린다. 친환경농업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폐원을 결정했다. 일반농업에서는 화학농약이 출시되어 대다수 농업인들을 괴롭히는 악마의 해충인 셈이다.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농업의 농작물 식재에 혈안이 되어있다. 국민의 식미 반응 또한 부드러운 과일 당도가 높은 과일을 선호하는데 과연 달고 부드러운 과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줄 것인가 의문이 든다. 부드러운 음식은 섬유질이 없어 먹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장 건강과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씹지 않아 아래턱이 길어지는 등 얼굴형이 변해 가고 있다. 아열대 과일 대부분의 당은 과당(설탕)이다. 너무 많은 당 섭취가 성인병 유발 물질로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 싸움>

2023년 장마철이다. 기록적인 폭우와 인명 손실이 두드러진 특별한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인류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지구상의 자원을 보자면 19세기 이전까지는 석탄이 중요시되었고 20세기에는 석유가 모든 산업과 문명의 절대자로 군림해 왔다. 21세기에는 어떠한 자원이 대신 할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이라고 주장한다. 물은 물리, 화학, 그리고 생리적으로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지켜주는 기(氣)가 막히게 완벽한 천성(天性)을 지닌 액체로서 첨단 과학이 꽃피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 물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사람과 과일나무의 60~65%, 엽채류와 과실의 70~75%가 역시 물이다. 식물에 물이 부족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생육기의 과일나무는 1주일 정도, 기타 작물은 4~5일 정도면 물 부족을 체감한다. 물 부족은 갈증과 스트레스(Water stress)로 심화되고, 이때부터 잎과 과실, 열매 간에 갈등과 알력이 조장되어 치열한 물 뺏기 싸움이 시작된다. 둘 중 누가 이길까? 이 숙명적인 싸움에서 앞은 백전백승(百戰百勝)이고, 열매 또는 과실은 백전백패(百戰百敗)이다.

물싸움에 패한 열매나 과실은 충분히 크지 못하고 당도가 떨어지며 착색 또한 불량해진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때에 비가 내리면 갈증에 지친 열매들은 한꺼번에 물을 마시고 또 마시다가 배가 터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열과(裂果)현상이다. 장마 기간이라 물이 풍부하다. 그렇다면 작물은 좋아할까? 뿌리는 삼투압이라는 방법으로 물을 조종하고 있지만 24시간 이상 물에 잠기면 뿌리가 썩어 버리게 된다. 우리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려는 물싸움을 철저히 막는 일이다.

*편집자주 : 이 글의 전문은 <목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자료실>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 01일(목) 다이어트 모임 / 이즐리와 함께하는 새활용 담은 이야기 전시 오픈행사(오거리문화센터) / 프리하당 행사 안내 회원 홍보 문자 발송
- 02일(금)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진도, 해남) / 프리하당 행사 준비 / 환경장사단 회의(목포시지속협) / 생태기행(남향) 웹포스터 제작, 발송
- 03일(토) 세계환경의날 기념식, 지구살림 새활용장터 프리하당(평화광장) 행사 부스 운영
- 07일(수) 미향초 환경교육 / 전국사무국처장단 총회의 / MPA-IUU 총회의
- 08일(목) 향도초 환경교육 / 전남교육공무직 전남지부 운영위원 대상 환경교육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영버스 도입과 운영 주민조례 서명운동(목포과대학 캠퍼스)
- 09일(금) 향도초 환경교육 / ESD교육 강사단 워크숍(순천) / 창립기념일 행사 준비 영상자료 공문발송(한국호남진흥원)
- 10일(토) 생태기행 목포 남향(16명)
- 11일(일) 목포 공영버스 도입과 운영 주민조례 서명운동(옥암성당)
- 12일(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2차 어민대회(여의도 국회 앞) / 소식지 준비 / 프리하당 활동 보도자료 발송 / 프리하당 평가회의 / ESD 교육
- 13일(화) 일자리통합센터 환경강의 / 6.15 대표자 회의 / 세월호 조례 관련 목포시 면담 / 창립행사 준비 사무국 회의
- 14일(수) 창립기념행사 회원 초대 문자 발송 / 창립기념행사 준비 / 전남 권역별 간담회 총회의 / 목포 공영버스 도입과 운영 주민조례 서명운동(목포역) / 공영버스 주민조례 온라인 서명 요청 회원 문자 발송
- 15일(목) 남주중 환경교육 / 함께사는길 회원 우편발송 / 6.15 23주년 기념 기자회견(목포역)
- 16일(금) 다이어트 모임
- 19일(월) 집행위 회의
- 20일(화) [기자회견]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전남도청) / 일자리통합센터 교육
- 21일(수) 프리하당 기획 회의(아름다운가게 목포하당점) / 완도 보길초 환경교육
- 22일(목) 창립행사 준비 점검, 홍보 / 남주중 환경교육
- 23일(금) 목포환경운동 40년, 창립 26년 기념행사(유달예술타운 공연장 3층) / 부주초 환경교육 / 목포연동초 환경교육 / kbs 라디오 생방송 남도특독 인터뷰
- 24일(토)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3차 전국행동의 날(서울시청역 광장)
- 26일(월) 향도초 환경교육 / 6.15집행위 회의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부권 간담회(YMCA) / 예코리딩 모임
- 27일(화) 소식지 우편발송 준비 / 창립행사 회원 감사 인사 문자 발송
- 28일(수) 제8차 생태와 재생에너지 공론장 영농형 태양광 현장 방문(보성) / 향도초 환경교육 / 김중수 목사 추모의 밤
- 29일(목) 101명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바다 플로깅 회원 홍보 문자 발송 /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운영에 관한 조례 서명지 전달 (173명) / 함평 월야중 환경교육 / 남주중 환경교육



▶ 6월 1일 이즐리와 함께하는 새활용 담은 이야기 전시 오픈행사(오거리문화센터)



▶ 6월 3일 지구살림새활용장터 프리하당(평화광장)



▶ 6월 23일 목포 환경운동 40년, 창립26주년 기념행사 (유달예술타운)



▶ 6월 24일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서울시청역 광장)

- 01일(토) 101명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바다 플로깅(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 03일(월) 연산초 환경교육 / 목포동초 환경교육 / 부귀영화 모임
- 04일(화) [기자회견] 목포시 공영버스 조례 도입을 위한 주민발안 성사 및 목포시 버스 행정 혁신 촉구(목포시의회 시민의 방) / 다이어트 모임
- 05일(수) 녹색일자리 토론회 준비 회의(전남도의회) / 민주노총 총파업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연대 발언(순천)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입법 촉구 탄원 캠페인 연대 서명 / 영흥중 환경교육
- 06일(목)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실행위원회 회의(YMCA) / 녹색일자리 토론회 전남 시군 공문발송
- 07일(금) 서부초 교육 / 녹색일자리 토론회 홍보 연락 / 탈핵교육 자료 작성
- 08일(토)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 집중행동(여수 이순신 광장)
- 10일(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서부권 활동 계획 공유 대표자 회의, 출범 기자회견 준비 / 옥암중 환경교육
- 11일(화) 해상풍력 인식 전환 워크숍(제주 1박 2일) / 6.15 집행위 회의 / 명성슈퍼 인근 공사장 소음 조사 / 목포 시내버스 현황 기고문 작성
- 13일(목)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서부권 실행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 14일(금) 전남도 녹색일자리 포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전남 여성가족재단) /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주 반대 농성장 지지 방문 / 무안 현경초 ESD 교육
- 17일(월) 옥암중 일본 핵 오염수 문제 환경교육 / 상락동 행복주택 사업단 방문 / 영암 남주중 환경 실천 서약서 작성
- 18일(화) 프리하당 기획회의(KT건물) / 환경연합 중앙위원회 총회의 / 상락동 행복주택 민원 관련 공문 우편발송
- 19일(수) 다이어트 모임 / 정보공개 청구(전남 골프장 현황)
- 21일(금) 일본 핵 오염수 저지 실행위원회 회의(목포YMCA)
- 25일(화)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안(유튜브-국회의원 강은미 TV)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 요청
- 26일(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서부권 공동행동 대표자회의(전교조 전남지회) / [기자회견]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서부권 공동행동 출범선언(전남도청 앞) /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구성 재검토하라! 목포시 불통 행정 규탄 기자회견(목포시청 앞)
- 27일(목) 향도 여중 환경교육
- 28일(금)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목포신항)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 회의(광주)
- 31일(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출근길 선전전 피켓시위(목포시청 앞) / 소식지 준비 / 광주·전남 공동행동 총 회의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참여 요청 회원 문자 발송 / 6.15 집행위 회의(디딤)



▶ 7월 4일 목포시 공영버스 조례 도입을 위한 주민발안 성사, 목포 버스 행정 혁신 촉구 기자회견(목포시의회)



▶ 7월 8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 집중행동(여수 이순신 광장)



▶ 7월 14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전남여성가족재단)



▶ 7월 28일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목포신항)

희비 남부

2023년 6월 ~ 2023년 7월

(유)세라돌/(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꾸메/농협은행(주)전남본부/담을꿈협동조합/대신아이시티(주)/더오래뜰/만인계마을기업/목포대성신편/목포아이쿱생협/영암일보(주)/코롬방제과점/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외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복수/강석원/강선애/강성희/강영규/강영두/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화심/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공석준/박신영/박재구/구봉선/권수한/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숙/김경애/김경완/김경주/김경희/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말금/김맥아/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옥/김병철/김보현/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희/김수린/김수미/김숙자/김순미(멜로아)/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영희/김오심/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원중/김유경/김유현/김윤임/김윤호/김은경/김은미/김은희/김일용/김장원/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주재/김중수/김지수/김지숙/김지희/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해정/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효정/김홍동/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다겸/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용철/류재청/마홍식/명소운/모원중/목포연희네포차/무관/문보현/문성중/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호산/민경관/민은주/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대현/박동구/박동환/박문욱/박미덕/박미숙/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병삼/박상현/박선옥/박선하/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수인/박수정/박순미/박안섭/박영운/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범/박재신/박재홍/박중수/박종위/박주원/박진/박찬경/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백동진/백성숙/백재봉/변재영/봉문수/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영선/서영숙/서영옥/서재연/서정/서정만/서지영/서한배/선채원/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다희/송두호/송미정/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현령/안만호/안명희/안정배/양덕수/양세영/양수민/양승미/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숙/양판수/양현주/양한/양호식/염미순/오경섭/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오창현/오하늘/오현자/오현주/우대열/우성주/우종식/위라겸/위준철/유경호/유영근/유영순/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훈/유지원/유혜정/유효진/윤금봉/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이경석/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교이/이금래/이금희/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보라미/이봉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이송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희/이양진/이영숙/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용현/이우주/이원기/이은주/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석/이정식/이종민/이종환/이주연/이주환/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충완/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진/이현철/이형광/이형남/이형숙/이형완/이혜령/이혜용/이화/이효빈/이희은/임경숙/임광휘/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임효철/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옥진/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향금/장희용/전경남/전날실/전대열/전명희/전상보/전성욱/전성철/전양수/전준수/전준원/전현호/전형숙/정경순/정고운/정대호/정동욱/정미라/정병이/정상문/정성배/정세영/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윤나/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태연/정현찬/정형권/정홍조/정효준/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소연/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정양/조종배/조창익/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주훈석/지이화/진선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나람/차선미/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선희/최성국/최송주/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양선/최영란/최영섭/최영숙/최영철/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원석/최은기/최은병/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정희/최지선/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병/최환석/최효/추연성/하영성/한양규/한은섭/한추희/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선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황선주/황순원/황순진/황형수/황혜미

2023년 6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9,233,000
	단체회비	635,000
	소 계	9,868,000
후원금		310,000
기타수익		7,600,000
이자수익		2,072
예비비		0
차입금		0

*후원금

- 다이어트 동호회 10만원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26주년 축하 5만원
- 유정 1만원

*기타수익

- MPA사업수익 760만원

*이자수익

- 2,072원

6월

당월수입금	17,780,072
전월이월금	4,721,378
합 계	22,501,450

2023년 7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9,298,000
	단체회비	335,000
	소 계	9,633,000
후원금		150,000
기타수익		0
이자수익		0
예비비		0
차입금		0

7월

당월수입금	9,783,000
전월이월금	3,215,560
합 계	12,998,560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391,200
	조사연구	0
	홍보비	0
	행사비	2,066,200
	연대사업	731,581
소 계		3,188,981
회 의 비	총회비	0
	위원회비	64,000
소 계		64,000
인 건 비	급여	4,012,560
	복리후생비	1,774,48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385,000
소 계		6,172,040
업무추진비	출장비	422,600
	활동비	30,000
소 계		452,6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500,000
	통신광열비	618,140
	소모품비	82,960
소 계		1,201,10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6,290
	보험료	100,000
	원천징수분	440,000
	지급수수료	560,879
	차입금상환	7,000,000
소 계		8,207,169
당월지출금		19,285,890
통장잔액		3,215,560
합 계		22,501,450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920,000
	조사연구	0
	홍보비	50,000
	행사비	532,400
	연대사업	541,581
소 계		2,043,981
회 의 비	총회비	0
	위원회비	32,000
소 계		32,000
인 건 비	급여	3,978,810
	복리후생비	1,552,100
	상여금	2,844,000
	퇴직적립금	386,660
소 계		8,761,570
업무추진비	출장비	90,220
	활동비	80,000
소 계		170,22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00
	통신광열비	212,500
	소모품비	64,000
소 계		276,50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8,680
	보험료	100,000
	원천징수분	17,600
	지급수수료	660,185
	차입금상환	0
소 계		886,465
당월지출금		12,170,736
통장잔액		827,824
합 계		12,998,560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가 소개하는 “동물에게도 평화를” 환경그림동화책

1999년에 설립된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 ‘어린이 책 문화 교육 운동’을 실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책을 읽고, 연구하며 좋은 책을 권장하며, 어린이 삶을 바르게 가꾸는 일을 2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책과 만나기 어려운 곳의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공부방,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좋은 책 선정하여 책 보내기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 책 목록 학교, 공공, 시립, 도립, 어린이 도서관 등에 제공하는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주 1회 이상 책을 읽고, 알리는 책 읽는 모임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책 문화에 대한 독서 강좌 및 작가초청 강연회 △외부 책 모임 활동 지원 △지역민 후원으로 2012년 11월 목포시 상동에 도서관 개관, 하늘을 나는 도서관 운영 △어린이작업실 모야 운영 등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지은이: 권정민 / 출판사: 보림

멧돼지 가족의 도시 방랑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들이 노랗게 빛나는 가을 저녁, 트럭 곁에 쭈그리고 앉아 도둑고양이와 눈을 마주치는 멧돼지를 볼 때, 어쩐지 좀 서글픕니다. 싸움과 공사로 난장판인 도로를 볼 때, 에어컨 실외기로 뽀뽀한 외벽을 볼 때, 스산한 뷔페식당에서 마구마구 먹는 사람들을 볼 때, 어딘가 좀 쾅깁니다. “하루 아침에 집이 없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새 집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조언하는 책의 시작부터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라며 도심 한가운데 사람들의 집에 자리잡은 모습까지 아이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고라니 텃밭 지은이: 김병화 / 출판사: 사계절

주인공인 화가 김씨 아저씨는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작가가 애지중지,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놓으면, 고라니가 와서 텃밭 채소를 먹어치워 버리는 소동을 두고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심어 놓으면 뜯어 먹고, 또 심어 놓으면 다시 뜯어 먹고, 그렇게 반복해서 거들 것 없는 텃밭 농사였답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어쩌면 숲의 주인은 숲 속 동물들이고 그들의 영역에 사람이 들어와 농사를 지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릅니다.”

작가는 고라니 소동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연 안에 더불어 사는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이야기 지은이: 유리 / 출판사: 이야기꽃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리나라를 휩쓴 ‘구제역 사태’는 돼지 약 332만 마리, 소 약 15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347만 목숨들은 대부분 산 채로 구덩이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것은 가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천지에 황사의 비명이 가득한데, 사람이라고 마음 편할 리 없었을 테지요. 더욱이 제 손으로 그 일을 처리한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목숨의 무게는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그때 그 짐승들은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죽어 갔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숲속의 언어

박종길 (목포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이끼 낀 돌과
바람에 스친 나뭇잎 소리도
모두 언어가 있다
실 같은 작은 개울물 소리도
어치 직박구리 까치도
모두 그들의 언어가 있다
숲길 위에 고요가 머물면
발밑에 스치는 풀잎의 소리와
수없이 많은 망령들의 한스러운 원망도
태양빛이 나뭇잎에 쏟아지는 소리까지
영혼 속에 존재한 언어가 있음을 알았다
밭길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
허공에 흩어지는 무수한 소리도
영혼이 맑으면 들을 수 있음을 알았다.

시집 『바람이고 싶었네』 중에서



시인의 말

시詩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낙서들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 나는 글이 아닌 렌즈를 통해 세상을 관조하고 음미해 왔다. 그러나 바르고 정직한 영상 앞이지만 그에 따른 캡션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글편들이 떨어진 낙엽처럼 멋대로 뒹굴고 있어 그것들을 한데 묶어 보려는 심산으로 시작한 일이다.

어떤 격식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내 안에 쌓인 이야기들을 문밖으로 내보내게 된 일이다.

어느 누가 길을 걸다가 떨어진 낙엽처럼 흩어진 이야기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다행이리라.

2023년 6월에

박 종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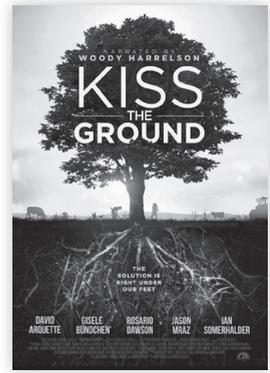
박종길 시인

- 1939년 출생, 목포에서 성장
- 《문예운동》(시) 당선으로 문단에 나섬
- 사진가로 활동하면서 잡지와 신문에 칼럼 및 기행문 등 연재
- 작품집으로 『목포 우리들의 고향』, 포토 에세이 『목포 이야기』를 펴냄
-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음

지구를 치유하는 방법 ‘땅을 살리는 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키스 더 그라운드>를 보고

글 | 남주연 회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인류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후변화 이야기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구를 치유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다가 다큐멘터리 영화 ‘대지에 입맞춤을(KISS THE GROUND)’ 보면서 땅에 대해 고민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과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공장제 농업, 살충제 사용, 화석연료와 같은 현재의 기후 훼손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농업을 만들고자 집중하는데 무려 7년 동안의 노력을 합니다. 그 후 쌀 재배 환경 개선, 나무 간작, 식물이 풍부한 식단으로의 전환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탄소가 기후위기를 부채질하는 주범이 된 것은 토양이 탄소를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만든 인간의 잘못된 뿐 탄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농업이 경운과 농약으로 이뤄져 토양미생물을 죽이고, 탄소를 배출시켜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연적 과정을 존중하는 농업(경운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과 토양관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소중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저 하늘의 탄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 우리와 멀리 있는 북극곰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로 희망을 보여 줍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 발밑에…….”라고, 영화 포스터에서 읽었을 때 두 주먹을 꼭 쥐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 실천의 길목으로’라고 되뇌며, 신입회원 배민숙님, 신전하님께 감사의 인사와 희망을 빨리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역사적인 날이 아닐 때가 없습니다. 환경영화는 감동이 크고, 실천할 수 있는 속제들이 광범위하기에 겁이 먼저 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들의 발밑에 있기에 농업에 15년 애써 온 분들을 위해서라도 널리 알리며,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교육도 하고 싶습니다.



* 매일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며, 세상과 소통합니다. 영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영화 같은 삶의 주인공을 꿈꾸는 ‘부귀영화’와 함께 활동할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국(061-243-3169)

새롭게 (사)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3.06.20.~2023.07.31 / 가나다 순)

• 김명진(이현승)

• 문철주(자발적)

• 이윤정(이진아)



목포환경
운동연합
신입회원
한마디

김명진

“오래전부터 지역 활동으로 알고 지냈던 최송춘 공동의장님, 임경숙 국장님, 현승씨, 진아씨, 회원분들. 환경연합 회원이 아니어도 여러 행사에 불러 주셨다. 이미 여러 단체에서 회원, 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니 기부금이 많이 나간다는 핑계로 환경연합 회원 참여가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은, ‘내가 과연 일상에서 환경운동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무거운 주제가 늘 힘들게 했다. 여러 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길냥이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엄청 배출하는 환경파괴자 같은 내가 환경연합 회원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환경은 풀기 힘든 숙제 같았다. 얼마 전 환경운동 40년 창립일 행사에 참여했을 때다. 임경숙 국장님이 ”지구를 위해서 월급의 1% 후원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울림처럼 날 흔들었다. ”그래. 지구를 위해서 동참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회원이 되었다. 이제는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더 생각하고, 각종 세제를 쓸 때도 아껴 쓰려고 노력한다.“

이윤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꼭 막아내자!”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0명 회원시대로!

* 회원가입 문의 사무국(061-243-3169)

한 장의 사진, 하나의 단상

글/사진 | 추연성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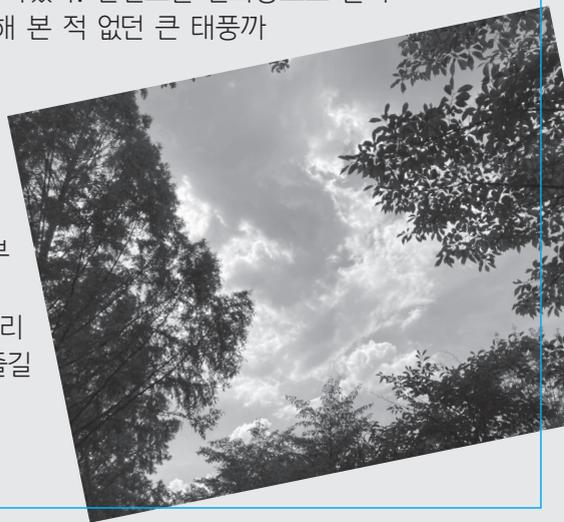
[푸른하늘]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다. 매미들의 울음소리는 귀를 따갑게 하고, 뜨거운 햇빛은 살갓을 파고들었다. 먹구름으로 가득했던 하늘은 제 빛을 찾아 푸르고 밝은 빛을 띠었다. 많은 비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때, 우리는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졌다. 한편으론 인과응보로 풀이 되기도 하였다. 높아지는 기온, 예측할 수 없는 폭우와 가뭄, 경험해 본 적 없던 큰 태풍까지 모두 인간이 뿌린 씨앗을 따라 자라난 재앙 같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의 영원한 고민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푸른 하늘을 조금 더 볼 수 있을까?’로 옮겨갔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즐기고 기뻐한다. 여름날의 햇빛을 좋아해서 밖에 의자를 두고 온몸으로 느끼는 작은 책방 사장님도 있고, 겨울의 눈이 좋아 몇 주씩 휴가를 내고 스키장에 머무는 젊은 부부도 있다. 모든 계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아름답다.

여름이 너무 뜨거워 내일이 걱정되고 내년의 여름이 두렵다면, 우리는 푸른 하늘을 푸르게만 볼 수 없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맑은 날이다.



정기후원 신청서

회원정보

이름 휴대전화

주소 집 직장

이메일

CMS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전좌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는 출금이 안됩니다)

예금주 이름 예금주 생년월일

후원액 1만5천원 2만원 5만원 직접입력()

출금일 10일 20일 28일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동의 문구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해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부자 주민번호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주민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①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 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출금이체 종료일(해지 일)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면, 권리 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요청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휴먼 소프트웨어	후원정보 및 후원금 결제정보	후원자 관리 및 후원금 결제정보 관리 / 문자 및 이메일 발송
금융결제원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전화 번호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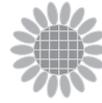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예금주 :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소식지 광고 후원받습니다.
광고비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 사무국 061-243-3169



해바라기 치과

원장 이해송



전화 : 061-279-2886 / 010-2654-2875
전남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 (산정동)



포 마 린

혼다V6, 아마하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FOUR MARINE
SINCE 1994

대표 최은기

전화 : 061-272-0118 / 010-9492-4207
전남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21-11

목포환경운동연합 이승우 감사님의
온그린 나무병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나무병원

병해충 진단/처방/방제
생활권 수목관리
(아파트/학교/공원/가로수 등)
보호수 관리
지표관리
컨설팅/설계

나무약국

살균/살충/제초제
수목영양제/수간주사제
생장조절제/수목보호제
비료/농자재
친환경 농자재



녹색을 켜다 온그린나무병원

대표 이승우

전화 : 061-285-1634

전남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3 상가동 203호

나무의 건강진단이 필요할 때 온그린나무병원